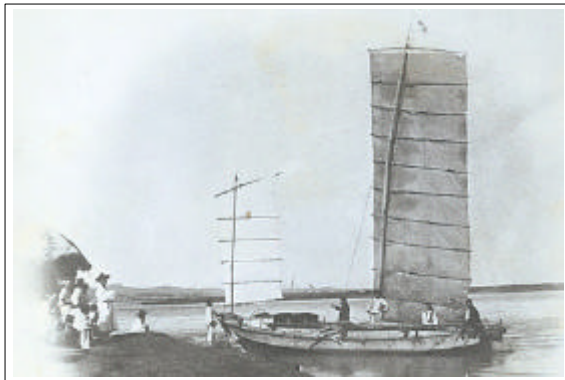


제 1 편 요 란 기
초대 다섯 선교사 시대(1894~1900)



한반도에 복음의 은총이

선교사들 헌신과 희생으로 옥토에 구원의 씨앗뿌려져

1885년에 내한한 미국 선교사 원두우 목사(장로교)와 아펜셀라(감리교) 목사에게 의해 본격적인 목회선교가 시작됐으며 1889년 호주장로교회와 영국성공회, 1890년 캐나다장로교회, 1892년 미국남장로교회, 1896년 미국남감리교회 등 각 나라는 서구문명까지 수반해 물밀듯 밀려왔다. 실로 예수 탄생 이후 유대인 중심의 기독교가 유럽과 신대륙을 거쳐 마지막 극동지역 한국에 오기까지 1880여년만의 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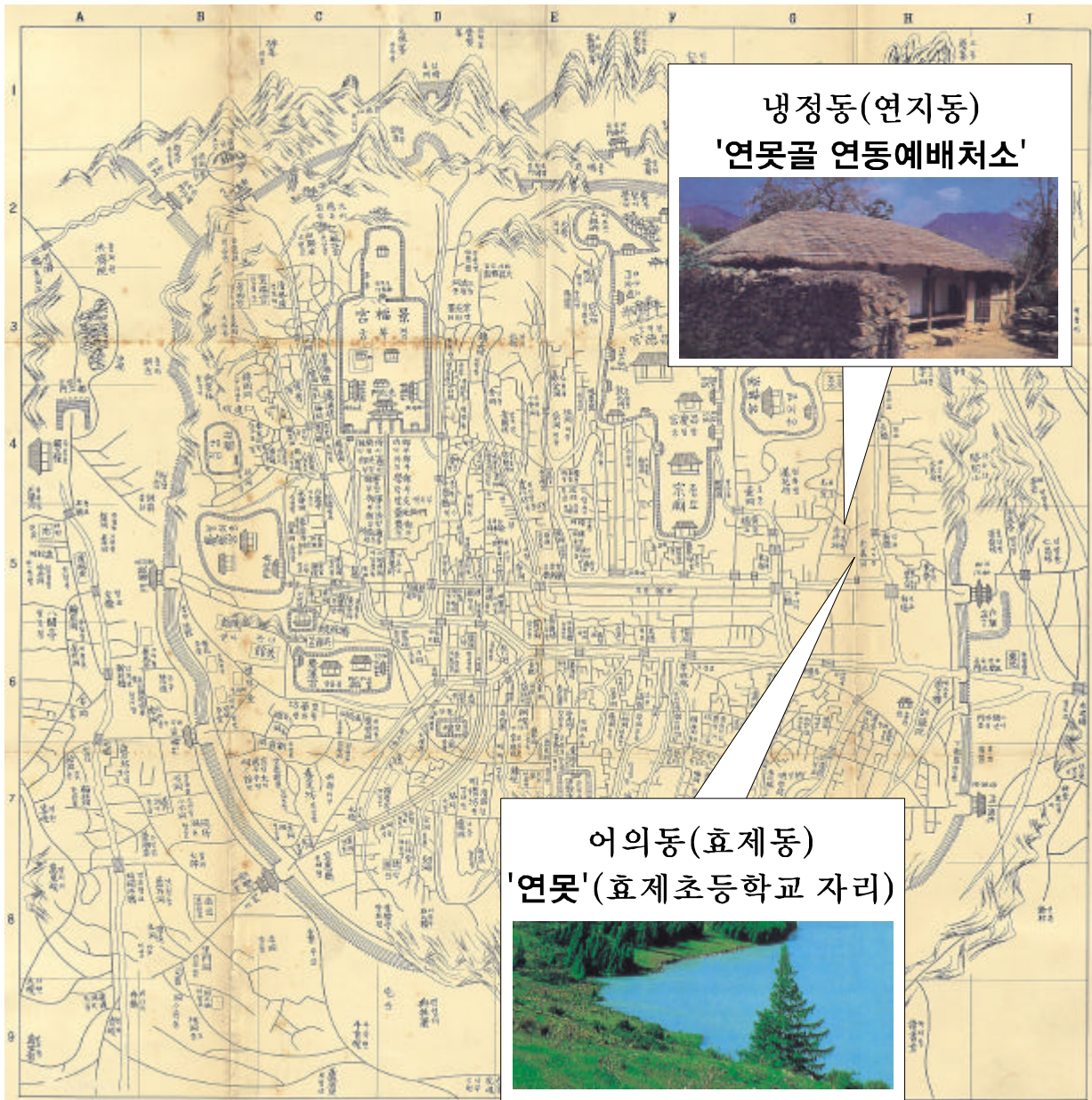
최초의 교인은 선교사의 집안일을 돌보던 일꾼들이나 말을 가르쳐 주던 어학선생들이었다. 선교들은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선교를 통해서 복음은 물론 서양문물을 전해줌으로써 서양인에 대

인식을 새롭게 했다. 1895년 여름 국내에 콜레라가 만연할 때 희생적인 봉사로 감화감동을 주며 많은 사람을 건져냈다.

일반적인 선교방법은 지방순회 전도, 기독교 문서의 반포, 노방 전도 및 사랑방 전도 등이었으며 병원이나 학교와 같은 기관을 통해서 민중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거기다가 잘 길들여진 사슴니즘이 팽배해 있어 그 옥토에 기독교는 쉽게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

모삼열 선교사는 배를 타고 한강을 오르내리며 전도하고 많은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기보 선교사의 경우 지금의 종로4가 하피마병문에 전도처를 두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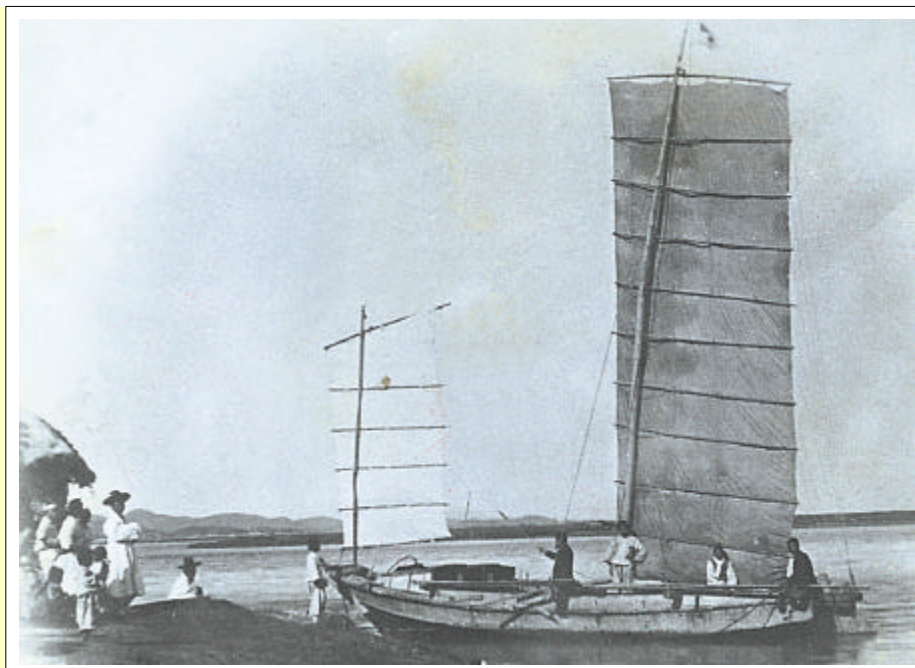
게일 목사 저 '한양(서울)' 별지 지도 (참고 : '연못골 연동예배처소'와 '연못' 관계사진)



어의동(효제동) 서쪽길로부터 연동예배처소 옆을 돌아 지금 100주년기념관 앞까지의 길은 변함없다. 그 오른쪽은 모두 어의동(추후 효제동)이며 당시 연동예배처소 앞에서 혜화동까지는 길이 없었다. 연못은 어디 있었을까? 인조대왕의 사저인 어의궁이 있었던 동네라 어의동이라 했는데 이곳에 큰 연못이 있어 이 일대를 연못골이라 했다. 1907년 연못을 메운 뒤 어의동보통학교(효제초등학교)가 들어섰다.

엽스미라그디방에독인이어서뵈셔바암에양의무리를직기노디주의
 사자갯터셔니주의영광이두루빛치우거날목인이크게우셔워하니사자
 갈오뒤무셔워말나너희게큰것분복음을보호노니이것뵈셔워위할
 자라오날다빛의고을에너희를워하여구완하느니라키리쓰토를탄심하
 나니얼인아히를보에사말궁이에누이물보리니이거시괴라하노디문
 득얼어던군이이서사자파함씩하나님을송양하여일오뒤우게노하나님

의게영한고알에노그것부울넉
 나하날노놀나가니목인이사로갈
 운일올보자하고급피가마리암파
 즉시턴사말하바이얼인아히일노
 기되마리암은이말노짜마암에간
 바가다턴사의갯타무로써하나



돛배를 타고 다니며 전도하는 선교사 - 1894



마펏과 게일 목사(왼쪽)의 전도여행(서울) - 1891



농촌에 가서 농부에게 전도하는 선교사 - 1899

다섯 선교사

순교를 각오한 전도와 교육 연동교회 태동의 공로자들



모삼열(牟三悅)
S.F. Moore



이길함(李吉咸)
Graham Lee



민로아(閔老雅)
F. S. Miller



빈돈(賓頓)
C. C. Vinton



기보(奇普)
D. L. Gifford

1884년 9월 미국북장로교 선교사인 알렌 의사에 이어 1885년 4월 내한한 원두우 목사에게 의해 장로교가 들어온 이후 모삼열·이길함·민로아·기보·빈돈(모두 한국명) 선교사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연못골에 연동교회가 태어났다. 이들은 연못골을 중심으로 한국인 김영옥·천광실·서상륜·김홍경·홍정후 조사를 각각 동반해

순교를 각오하고 전도에 나섰으며 연동교회의 반석을 놓는데 크게 공헌했다. 1894년 갑오개혁에 따라 봉건사회가 붕괴되고 서양의 문물이 물밀듯 들어와 우리나라는 복음화와 근대화라는 새로운 풍토를 맞이했다. 구에서 신(新)으로 죄에서 구원으로 바뀌는 시초였다.

모삼열 선교사: 백정들을 상대로 한강 주변 및 서울에서

활동하며 곤당골 예배당(송동교회) 등 많은 교회를 설립했다.

이길함 선교사: 서울에서 선교한 이후 평양으로 가서 많은 공헌을 했는데 1907년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 운동의 주동자였다.

민로아 선교사: 정동에서 민로아학당(경신의 전신) 책임자로 있었고 그 후 청주지역에 내려가 44년간 선교활동을

벌였다.

빈돈 선교사: 제증원 원장을 지낸 뒤 장로교 최초의 '그리스도신문'(1897) 주간을 담당하고 특히 나병환자를 위해 힘썼다.

기보 선교사: 새문안교회에서 봉직하고 한국학 연구에 몰두했으며 많은 저서와 논문을 남겼다. 1900년 선교여행 중 별세할 때까지 경기지방 선교에 전념했다.



원두우 목사 내외(왼쪽)를 비롯한 최초의 선교사들과 그 가족 - 1893